

## 0C-II-2. 치근 절제된 치아의 10년 동안의 후향적 연구

박신영\*, 신승운, 양승민, 계승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원 치과학교실, 삼성서울병원 치주과

### 연구 배경

치근 절제술은 분지부 병변이나 치아우식증, 치근 파절, 치근단 병소 등이 있는 다근치에서 자연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술식이다. 이 연구는 삼성서울병원 개원 이후 치근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분포와 생존율에 대해 후향적으로 조사하고, 치근 절제된 치아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 연구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치근 절제술을 받은 환자 579명 (남 384명, 여 195명, 평균 나이 50.77세)의 691개 대구치를 대상으로 하였다. 방사선 사진 및 진료기록을 참고하여 술전 상태 및 수술 원인, 생존기간, 술후 상태 등을 조사하였다. 이중 1년 이상 내원한 환자 330명의 대구치 402개 중 기록이 미비한 60개를 제외한 342개 대구치를 대상으로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관하여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 연구 결과

140개의 상악 제1 대구치와 118개의 하악 제1 대구치, 46개의 상악 제2대구치 및 38개의 하악 제2 대구치가 연구에 포함되었다. 251개의 치아가 치주질환으로 절제술을 받았으며 치근 파절로 45개, 치근단 병소가 원인인 경우가 29개, 치아우식증으로 절제된 치아는 17개였다.

10년 동안 30%인 102개의 치아가 실패하였으며 평균 생존 기간은 4.59년이었다. 실패의 이유는 재발된 치주질환으로 인한 상실이 51개로 가장 많았으며 치근 파절이 그 다음이었다.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분석 결과 흡연, 나이, 성별등의 환자 관련 요소는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절제된 치아의 상태에 있어서는 지대치 상태, 대합치, 술후 보철물, 치주지지 등은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절제된 그룹내에서는 골 지지도가 높은 경우 생존율이 더 높았다. ( $P$ -value= 0.0269) 절제술과 관련하여서는 치주질환의 해결을 위해 절제한 대구치가 치근 파절 등의 이유로 절제된 치아에 비하여 더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 $P$ -value=0.0097)

### 결론

삼성서울병원에 내원하여 치근절제술을 받은 276명의 환자를 후향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치근 절제술은 치주질환에 이환된 대구치에 있어서 치아를 보존하고 생존시간을 연장시키는데 유용한 술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